

경북 농공단지 운영 실태와 활성화 방안

김 영 형*

A study on the operation conditions and activation plans of rural industrial complex in Gyeongbuk

Young-Hyung Kim

요약 : 본 연구는 경북농공단지를 중심으로 운영실태 및 현황 등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경북농공단지의 가장 큰 문제점은 업체 간 연계가능성이 매우 희박한 여러 유형의 업체들이 단순 집적한 형태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젊고 우수한 인력이 도시로 지속적으로 유출되고 있고, 대부분의 농공단지가 오래전에 조성되어 기반시설이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농공단지를 특성화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예를 들어 구미국가산업단지의 인근의 농공단지는 전기전자로 특화된 농공단지를 조성하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또한 경북농공단지의 산업구조 고도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농공단지 관리업무의 효율화를 위한 전략 또한 마련되어야 한다. 전문 운영기관에 관리운영을 위탁 하거나 혹은 농공단지별 정보화사업을 실시하여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지원하는 방안 또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산업단지 클러스터와의 연계를 통한 활성화 방안을 고려해 봐야 할 것이다.

주제어 : 농공단지, 지원정책, 경상북도, 활성화

Abstract : Rural Industrial Complex(RIC) is considered as one of the most important sources of off-farm income in Korea. But RICs has many problems since it was beginning development. In 2008, RICs in Gyeongsangbuk-do are 56 place, and are 836 corporations in RICs. Employee is total 20,109 persons. Competitive power of RICs weak location condition, small business, lack of infrastructure, institute. The main focus of this paper is to derive policy suggestion for Gyeongsangbuk-do RICs. We investigate the operation status of Gyeongsangbuk-do RICs. It is necessary that RICs be promoted in light of revitalization program.

Keywords : Rural Industrial Complex, Policy, Gyeongsangbuk-do, Revitalization.

* 김영형, yhkim@kicox.or.kr

1. 서론

1960~1970년대 급속한 경제성장 과정에서 비료·농약·농기계와 같은 농용자재는 물론, 종래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조달하던 생활필수품의 상당 부분이 공장생산물로 대체되면서 농어촌의 제조업 부문이 크게 위축되었다. 특히 대도시와 울산, 구미, 여천 등 일부 거점지역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공업개발은 젊은 노동력의 이농 및 이촌을 부채질하여 결국 오늘날과 같은 농림수산업 위주의 농어촌 산업구조를 고착시키게 되었다(이동필, 2009). 그 결과 도시지역과 농어촌지역 간의 소득 격차는 점차 심화되고 농어촌지역은 지속적 성장이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취지에서 1984년부터 본격적으로 농공단지조성사업을 채택하기 시작한 것이다.

농공단지 개발은 공업입지 여건이 불리한 농어촌지역에 소규모 공업단지를 조성하고, 입주업체에 대한 조세 및 금융지원을 통해 공업개발을 촉진하려는 일환으로 시작되었다. 즉, 농어촌지역에 비농업 부문의 취업기회를 창출함으로써 농가의 농외소득을 증대시킬 뿐만 아니라 지역의 균형개발과 농업구조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이 그 목적이었다(이동필, 2009).

이러한 목적 하에 농공단지 개발사업을 통해 지난 1984년부터 2008년까지 385개의 농공단지가 개발되었고, 5,372개 업체에 120,171명의 종업원들이 고용되어 해마다 약 31조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농공단지 개발사업은 입지여건, 노동력 등 모든 여건이 불리한 농어촌을 대상으로 신규일자리 창출 및 농어촌 소득증대에 기여한 점에서는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성취지에도 불구하고 도입 된지 35년이 지난 현재, 농공단지는 여러 불리한 여건 등으로 인해 농어촌지역의 전문 산업단지로서의 경쟁력은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더군다나 최근의 한미 FTA 등 추가적인 무역협정 체결 움직임이 있어 농공단지는 스스로

생존전략을 구축하지 않으면 경쟁력을 잃어 생존 자체가 위협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전반적인 위기 상황은 모든 농공단지가 처한 상황일 것이며, 경북 농공단지도 예외일 수는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경북지역 농공단지를 중심으로 운영 실태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농공단지가 처한 위기상황과 문제점을 분석하여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2. 농공단지 기본개념 및 선행연구

1) 농공단지의 개념 및 성격

농공단지란 “농어촌 지역에 공업 및 서비스산업을 유치하여 농어촌 소득원의 개발을 촉진함으로써 농어촌 소득을 증대하고 농어촌 소득구조를 고도화하여 농어촌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추진된 공업단지”이다(농어촌 소득원 개발 촉진법 제1조). 즉, 농공단지는 1970년대 이후 도시 위주의 산업화 발전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농어촌지역에 제조업 및 관련 서비스산업을 유치하여 지역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고 농어촌지역의 농외소득원을 개발하고 농업구조 개선을 위하여 추진된 것이다.

농공단지 정책의 근거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농어촌정비법, 환경정책기본법 등으로 농공단지의 지정·조성·관리·입주기업체의 지원 및 농어촌지역의 환경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은 농공단지의 지정·개발에 관한 절차 및 지원사항 등을 규정,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은 농공단지의 관리·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 「농어촌정비법」은 농공단지 개발의 지원에 관한 기본방침과 생산제품 판매 및 농어촌 환경보전을 위한 지원에 대한 기본사항을 규정, 「농공단지의 개발및운영에관한통하지침」은 농공단지의 지정·개발사업 지원·분양 및 입주지원·환경관리·사

후관리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유세준, 2008).

2) 선행연구

농공단지가 농어촌지역의 전문 단지로서의 경쟁력이 부족하다보니 농공단지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그러나 최근 농공단지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여러 논의가 이루어지고 농공단지도 스스로 생존을 위한 자구책 마련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면서 농공단지에 대한 연구가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다. 농공단지를 대상으로 한 기존 연구들을 크게 4가지로 흐름으로 분류해 볼 수 있다. 첫째는 농공단지 성과를 분석하고 지역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연구(고영구·장정호, 2003; 고영구 등, 2003)이고, 둘째는 농공단지와 환경오염에 관한 연구(나승일·강대구, 1998; 양천희, 1994, 나진성 등, 2003)이고, 셋째는 농공단지 지원정책과 성과에 관한 연구(임동환, 2008; 유세준, 2008)이고, 넷째 농공단지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이용호, 1999; 유세준, 2008, 우장명, 2009)이다.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한 논의가 일부 연구자들(이용호, 1999; 유세준, 2008, 우장명, 2009)에 이루어져 왔으나, 이들 연구는 대상지역이 충북과 전라도로 한정되어 있다. 경북지역 농공

단지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일부 연구자(이철우, 2008)에 의해 경북지역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이루어졌으나 농공단지 존립기반에 관한 연구로 한정되어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경북지역 농공단지를 대상으로 운영실태 점검을 통해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3. 경북 농공단지 일반현황과 운영 실태

1) 경북 농공단지 일반현황

2008년 6월말 현재 경북지역에는 총 56개 농공단지가 조성되어 있으며 이들 농공단지에는 836개의 기업이 입주하여 20,109명의 종업원들이 고용되어 있다. 이들 기업들이 생산한 금액은 2,909,287백만원이며, 수출금액은 557,942천불이다.

업종별 분포 현황을 보면 전체 836개 기업 중에서 섬유·의복이 309개사(37%)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금속조립·철강기계가 195개사(23.3%), 비금속 97개사(11.6%), 전기전자가 125개사(15%) 등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표 1. 경북 농공단지 일반현황

구분	경북 현황
단 지 수 (개소)	56
총 면 적 (천㎡)	9,232
입주기업(개사)	836
생 산(백만원)	2,909,287
수 출(천 불)	557,942
고 용(명)	20,109

자료: 전국산업단지현황통계, 2008년 2/4분기, 지식경제부, 한국산업단지공단

표 2. 업종별 분포 현황

(개사)

경북	음식료	섬유 의복	석유 화학	비금속	금속조립 철강기계	전기 전자	운송 장비	기타	계
계	50	309	42	97	195	125	5	13	836
비 중(%)	6%	37%	5%	11.6%	23.3%	15%	0.6%	0.4%	100%

2) 경북 농공단지의 운영실태

전체 분양대상 면적 중에서 미분양 된 면적은 102,000m²이며, 분양률은 98.5%로 전국 평균분양률 97.9%보다 높은 수준으로 분양률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경북지역의 농공단지 수는 2008년 현재 56개로 전국의 15%를 차지하고 있다. 2008년 6월 현재

20,109명이 경북 농공단지 내 기업체에 고용되어 있으나 이는 전년도 비해 3% 감소한 수치이다.

생산액과 수출액은 전국 평균 증감률이 모두 10%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경북농공단지외의 경우 생산액은 2007년 같은 기간보다 증가하였으나 수출액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경북 농공단지의 생산수출 증감률이 전국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경상북도 농공단지 운영현황

(단위 : 개, 천m², %)

시·도	단지수	지정면적	관리면적	산업시설구역				
				전체면적	분양대상	분양	미분양	분양률
전국	372	58,860	58,754	46,192	41,909	41,013	896	97.9%
경북	56	9,232	9,238	7,234	7,006	6,904	102	98.5%

자료: 전국산업단지현황통계, 2008년 2/4분기, 지식경제부, 한국산업단지공단

표 4. 경상북도 농공단지 입주 및 고용현황

(단위 : 개, 개사, %, 명)

시·도	단지수	입주계약 업체	공장설립 완료업체	가동 업체	가동/입주 업체비율	가동/공장 설립업체비율	고 용		
							'08.6	'07.6	증감률
전국	372	5,380	4,900	4,638	86.2	94.7	121,949	116,180	5.0
경북	56	867	812	759	87.5	93.5	20,109	20,178	-0.3

자료: 전국산업단지현황통계, 2008년 2/4분기, 지식경제부, 한국산업단지공단

표 5. 경상북도 농공단지 생산 및 수출현황

(단위 : 개, 백만원, 천달러, %)

시·도	단지수	생산액			수출액		
		'08.6월 누계	'07.6월 누계	증감률	'08.6월 누계	'07.6월 누계	증감률
전국	372	15,891,616	14,182,467	12.1	3,863,430	3,171,459	21.8
경북	56	2,909,287	2,818,246	3.2	557,942	600,426	-7.1

자료: 전국산업단지현황통계, 2008년 2/4분기, 지식경제부, 한국산업단지공단

표 6. 농공단지별 업종구조 현황

단위:(개사)

시·군	단지명	계	식품	섬유	목재	석유 화학	비금속	기계	조립 금속	전자	운송 장비	기타
구미시	산동	13	0	6	2	2	0	1	0	2	0	0
김천시	지례	3	0	2	0	0	0	1	0	0	0	0
상주시	공성	9	2	1	0	1	2	1	1	0	0	1
상주시	외답	26	3	4	3	5	5	4	0	2	0	0
상주시	함창	16	4	3	0	2	4	0	2	1	0	0
상주시	화동	4	0	0	0	0	2	0	1	0	0	1
상주시	화서	9	0	0	0	0	5	4	0	0	0	0
군위군	군위	34	1	13	0	2	0	3	0	3	0	12
성주군	월항	32	2	10	2	9	0	4	1	4	0	0
의성군	다인	11	2	1	0	0	8	0	0	0	0	0
의성군	봉양	15	3	5	0	1	3	2	0	0	0	1
의성군	의성	15	5	3	0	2	2	3	0	0	0	0
의성군	단밀	-	-	-	-	-	-	-	-	-	-	-
청도군	청도	12	3	5	0	0	0	3	0	0	0	1
청도군	풍각	28	3	9	1	3	3	4	2	0	0	3
칠곡군	기산	21	2	8	0	3	0	0	1	3	0	4
김천시	감문	12	2	0	2	0	2	0	0	2	1	3
구미시	해평	13	0	0	0	4	0	1	0	6	0	2
김천시	대광	22	0	3	3	4	1	4	0	3	3	1
고령군	개진	32	1	3	2	22	1	0	2	0	1	0
고령군	쌍림	31	3	22	2	0	1	0	1	0	0	2
군위군	효령	11	1	5	0	0	1	0	0	0	0	4
성주군	선남	8	0	8	0	0	0	0	0	0	0	0
성주군	성주	15	0	8	1	2	0	3	1	0	0	0
김천시	아포	17	0	0	0	1	1	6	0	9	0	0
구미시	고아	36	3	0	1	3	0	9	0	7	0	13
경주시	내남	4	0	0	1	2	0	0	0	0	1	0
경주시	서면	11	0	2	0	0	1	2	0	0	5	1
경주시	안강	9	0	2	0	0	0	4	0	0	3	0
영천시	고경	7	0	1	0	3	0	2	0	0	0	1

김영형

시·군	단지명	계	식품	섬유	목재	석유 화학	비금속	기계	조립 금속	전자	운송 장비	기타
영천시	북안	11	2	1	1	0	1	3	3	0	0	0
영천시	화산	12	1	7	2	0	0	1	1	0	0	0
포항시	청하	18	1	1	1	1	1	5	4	0	0	4
경주시	외동	5	0	0	0	2	0	0	0	0	3	0
경주시	건천	6	0	0	0	0	0	0	0	4	2	0
영천시	본촌	15	0	2	2	1	1	1	4	0	0	4
영천시	도남	17	1	1	1	2	0	7	4	0	0	1
문경시	가은	10	3	2	0	0	1	3	1	0	0	0
문경시	마성	17	4	1	0	2	3	4	0	2	0	1
문경시	산양	20	3	3	1	3	5	3	0	1	0	1
문경시	영순	5	3	0	0	1	1	0	0	0	0	0
문경시	영순2	-	-	-	-	-	-	-	-	-	-	-
상주시	공성	9	2	1	0	1	2	1	1	0	0	1
상주시	외답	26	3	4	3	5	5	4	0	2	0	0
상주시	함창	16	4	3	0	2	4	0	2	1	0	0
상주시	화동	4	0	0	0	0	2	0	1	0	0	1
상주시	화서	6	0	0	0	0	5	1	0	0	0	0
안동시	남선	9	2	1	2	2	0	2	0	0	0	0
안동시	남후	30	7	3	0	7	5	6	1	0	1	0
안동시	풍산	17	3	1	2	4	2	2	1	0	1	1
영주시	가흥	3	1	0	0	0	0	0	0	1	0	1
영주시	문수	3	1	0	0	0	1	0	0	0	0	1
영주시	봉현	19	3	16	0	0	0	0	0	0	0	0
영주시	장수	29	2	3	1	2	0	7	0	2	0	12
영주시	적서	1	0	0	0	0	1	0	0	0	0	0
영주시	휴천	1	0	0	0	0	0	0	0	0	0	1
봉화군	봉화	13	4	1	0	2	2	0	0	0	0	4
봉화군	봉화2	5	1	0	0	0	0	0	0	0	0	4
영덕군	영덕	12	2	0	1	0	5	1	0	0	0	3
예천군	예천	7	2	0	0	0	3	0	0	0	0	2
울진군	울진	12	2	1	1	0	5	3	0	0	0	0

자료: 산업단지현황, 한국산업단지공단, www.e-cluster.net, 2009.1

단지별 업종구조 현황을 살펴보면, 포항 청하, 영천 도남 농공단지는 기계가, 군위 쌍림, 군위 효령, 청도 풍각 농공단지는 섬유가, 고령 개진은 석유화학이 경주 서면은 운송장비가 김천 아포와 구미 고야는 전기전자와 기계가 그리고 영천 화산은 섬유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경북 농공단지의 문제점

경북농공단지의 가장 큰 문제점은 업체 간 연계 가능성이 매우 희박한 여러 유형의 업체들이 단순 집적한 형태가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특히 부가가치가 낮은 업종들이 단순집적한 형태가 많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다. 예를 들어 상주 외담농공단지의 경우 식품, 섬유, 목재, 석유화학, 비금속, 기계, 전자 등과 같이 다양한 업종이 입주하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앞서 현황 분석에서 나타난바와 같이 경북 농공단지는 전반적으로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국 수출 증감율은 증가하고 있으나 경북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 이것은 연쇄적으로 고용을 감소를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전반적으로 경북 농공단지가 처한 위기상황을 잘 대변해 주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농공단지 전반에 대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셋째, 대부분 경북 농공단지가 대도시에서 먼 농촌지역에 입지하고 있어 원거리 출퇴근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기숙사뿐만 아니라 가족을 위한 아파트 등과 같은 각종 생활시설이 많이 필요하나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이는 우수인력을 유치하는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젊은 인구는 지속적 감소는 농촌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상주 인력의 노령화를 촉진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산업단지나 대기업이 밀집하여 상대적으로 근로환경이 우수한 구미시나 포항시 등 몇몇 도시를 제외하면 경북 내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젊은 노동력이 환경이 나은 도시로 빠져나가고 있는 추세이다.

넷째, 특히 업종의 다변화 및 선진화가 이루어지

지 못하고, 지역 특색을 반영하지 못한 업종이 대다수인 단지가 많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전남 순창의 고추장이나 전남 보성의 녹차 등과 같이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산업이 발전하기 보다는 성주 선남, 고령 쌍림, 청도 풍각 등과 같이 단순히 섬유업종이 집적한 농공단지가 많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농공단지 본래를 취지에서 어긋날 뿐만 아니라 농공단지 스스로가 지속적 경쟁력 창출에는 한계가 있음을 나타내는 결과이다.

4. 경북 농공단지 활성화 방안

1) 경북농공단지 특성화 전략

경북지역 56개 농공단지의 특성화를 통해 활성화를 유도하고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경북지역 56개 농공단지는 각각 고유의 지역적, 그리고 단지별 특성이 있으므로 이를 최대한 고려하고 또한 주변 산업단지와의 연계 가능성 등을 고려한 특성화 전략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경북 농공단지를 크게 3개 권역으로 나누고 각 권역별 특성화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구미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인근에 형성되어 있는 농공단지의 경우는 전기전자 산업으로 특화된 농공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구미국가 산업단지는 우리나라는 대표 하는 전기전자 산업단지로서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한다면 구미인근의 농공단지 간 연계를 통해 상호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포항, 경주 등 인근지역의 농공단지는 지역 기반 산업인 기계, 조립금속으로 특화된 농공단지로 조성하고, 마지막으로 북부지역의 농공단지는 지역특산 농산물이나 가공품 등을 복합 상품화함으로써 고용을 창출하거나 매출을 늘리고 부가 가치를 높이도록 식품, 비금속으로 특화된 농공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농공단지의 발전에서 가장 필수적인 것은 업종간 협력, 기업간 네트워크, 농공단지간 협력, 사업연계일 것이므로 이를 효율

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클러스터 지원체제 구축이 중요할 것이다.

2) 경북농공단지외의 구조고도화 전략

경북농공단지가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단순 제조업 위주의 산업구조를 탈피하는 새로운 산업정책의 수립, 추진이 시급하다. 앞서 현황조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경북농공단지의 경우 섬유·의복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또한 단순집적형의 농공단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외부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자생력을 키우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

특성화 전략을 수립함에 있어 그 기본에는 21세기 지식경제 시대에 부합하는 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일시에 경북농공단지의 산업구조를 개편한다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단계적 추진 전략이 필요한데, 우선적으로 우수인력의 유지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공공연구기관을 지역에 유치하고, 또한 산·학·관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지속적 교류의 장을 마련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농공단지의 구조고도화를 위해서 농공단지 내에 기술집적 수준이 높은 기업을 체계적으로 유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단지내 기업간 상호협력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연쇄적으로 단지 내 기술집적을 고도화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입주기업간의 이업종교류, 협력촉진, 사업전환, 구조조정지원 등의 구체적인 프로그램들을 운영한다. 이를 통해 산업집적의 구조고도화가 산업구조 전환을 유도하도록 하는 것이다. 실제 일본의 이와데현 기타가미시의 경우 공업지대에 기술수준이 높은 중소기업을 계통적으로 유치함으로써 기업집적의 순기능을 보이는 사례이다(배경화 & 김태환, 2005).

3) 경북농공단지의 관리운영의 효율화 전략

지방자치단체 농공단지 담당자의 경우 농공단지 뿐만 아니라 지방단지까지 관리업무를 겸하고

있어 인력부족 현상은 심각한 상황이며, 예산 부족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위해 지경부의 농공단지 지원정책의 통합 지원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지자체가 희망하는 농공단지의 경우 전문 산업단지 관리기관에 관리업무를 위탁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입주업체가 직접 농공단지를 관리·운영하는 시스템보다는 입주기업협의회가 자율적으로 전문관리기관을 선정하여 관리를 위탁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한다. 최근 장성군의 경우 동와 및 삼계농공단지의 관리업무를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위탁한 사례가 있으며, 부산의 기장농공단지, 김해의 진영, 나전, 봉림 등 7개 단지, 원주 태장, 동화농공단지의 경우 위탁을 추진하고 있다(조혜영, 2007).

농공단지별 정보화기반 지원 사업 추진을 통해 운영의 효율화를 달성하도록 해야 한다. 각 농공단지별 정보화 기반을 마련하여 업무환경을 개선하고, 인적네트워크를 활성화 하여 전체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케 한다. 농공단지별 통합정보망은 각 농공단지별 협의회에서 운영하도록 하고, 이들 단지별 통화정보망은 연계를 통해 상호 정보교환 및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도록 한다.

4) 산업단지와의 연계를 통한 활성화전략

농공단지는 영세성, 인력의 부족, 자금의 부족 등으로 인해 독자 생존 및 발전에는 한계가 분명히 존재한다. 따라서 상생 협력을 통해 돌파구를 마련해야 하는데, 산업단지 클러스터와 연계를 통해 지식창출과 기술혁신을 위한 방안을 공유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국가단지를 중심으로 주변 지역의 지방단지, 농공단지외와 연계하여 지역전략산업 중심의 초광역 클러스터를 구축하려고 하고 있다. 산업단지 중 시범단지를 중심으로 구성된 업종별 미니클러스터에 농공단지 입주업체를 참여시켜 공통의 애로기술과제 및 경영애로의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시범단지 입주기업과 농공단지 입주기업이 공

표 7. 경북농공단지과 혁신클러스터의 연계방안 예시

구미추진단 내 미니클러스터 구성현황	단지별 연계방안
	농공단지
6개 구성·운영 (파워디스플레이, 모바일, E&H, 부품소재·금형, IT장비, IT융합섬유)	구미 고아 김천 아포
6개 구성·운영 (파워디스플레이, 모바일, E&H, 부품소재, 금형, IT장비, IT융합섬유)	영천 고경 영천 북안 영천 도남 포항 청하

등으로 기술과제 등을 신청할 경우 가점을 부여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와 자금의 지급 한도를 상향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구상하여 농공 단지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조혜영, 2007).

예를 들어, 구미클러스터추진단에는 현재 6개의 미니클러스터(파워디스플레이, 모바일, E&H, 부품소재·금형, IT장비, IT융합섬유)가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다. 경북농공단지 중 구미 고아, 김천 아포 등의 농공단지는 전기전자가 주력업종으로 구미추진단의 파워디스플레이, IT장비, 모바일 미니클러스터 등과의 연계를 추진해 볼 수 있고, 영천 고경, 북안, 도남, 포항 청하 등의 농공단지는 조립금속이 주력 산업으로 구미추진단의 부품소재, 금형 미니클러스터와의 연계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들 지역은 구미클러스터추진단과의 거리상으로도 인접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상호교류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5. 맺음말

농공단지는 농어촌 주민의 소득증대 및 지역발전 목적으로 조성되기 시작하였으나, 상대적으로 불리한 입지여건, 입주기업의 영세성, 우수인력 확보의 어려움, 교통 불편 등과 같은 요인으로 인해 지역전문 단지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경북농공단지를 중

심으로 경북농공단지의 운영실태 검토를 통해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경북농공단지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경북농공단지는 분양이 거의 완료된 상태이나 생산량과 수출량은 전국 평균보다 낮은 수준으로 2008년 경우에는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경북농공단지의 가장 큰 문제점은 업체 간 연계가능성이 매우 희박한 여러 유형의 업체들이 단순 집적한 형태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 보니 업체 간 협력을 통한 시너지 창출이 힘들고 지속적인 발전 가능성에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업종의 다변화 및 선진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지역 특색을 반영하지 못한 업종이 대다수인 단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농공단지 내에 기업들이 단순집적형으로 입주함으로써 인근 지역의 연관기업, 국가산업단지 등과 수급관계나 집적사슬을 형성하지 못해 경쟁력 저하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경기 침체 시 휴·폐업이나 도산이 속출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경북농공단지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우선 농공단지를 특성화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예를 들어 구미국가산업단지의 인근의 농공단지는 전기전자로 특화된 농공단지를 조성하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또한 경북농공단지의 산업구조 고도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현재 농공단지가 처해있는 상황에 대한 면밀한 실태파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기반시설, 노동력 공급 상태 등에서의 해

결방안을 제시하여 농공단지의 구조고도화 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농공단지 관리업무의 효율화를 위한 전략 또한 마련되어야 한다. 전문 운영기관에 관리운영을 위탁 하거나 혹은 농공단지별 정보화사업을 실시하여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지원하는 방안 또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산업단지 클러스터와의 연계를 통한 활성화 방안을 고려해봐야 할 것이다. 클러스터 소속 기업과 농공단지 입주기업간 연계를 통한 공동발전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하는데 예를 들어 공동으로 연구개발을 추진하거나 지원금을 신청할 경우 가점을 부여하여 우선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고영구·장정호, 2003, “농공단지의 지역경제 효과 분석 - 충북지역을 사례로”, 한국동서경제연구, 15(1).

고영구·장정호·우장명, 2003, “농공단지사업의 성과요인분석에 관한 연구 - 충북지역 농공단지를 중심으로”, 농업경영정책연구.

나승일·강대규, 1998, “농공단지 지역 주민들의 환경오염 인식과 행태 연구”, 한국농업교육학회지.

나진성·임진희·김상돈·한상국, 2003, “전남지역 10개 하수처리장 및 농공단지 방류수의 통합 독성평가”, 2003년도 대한환경공학회 춘계 학술연구발표회 및 정기총회.

배경화, 김태환, 2005,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농공단지의 혁신방안에 관한 연구, 국토연구원.

임동환, 2008, FTA극복과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한 농공단지 지원시책 추진전략, 중소기업진흥공단.

이동필, 2009, 농공단지 개발정책의 성과와 과제, 국토연구원.

이철우, 2008, “대도시 주변 농공단지의 존립기반과 정책적 함의: 고령군 농공단지를 사례로”,

한국지역지리학회지.

이용호, “농공단지의 효율적인 육성방안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9.

양천희, 1994, “농공단지 조성에 따른 하천 수질관리 대책에 관한 연구(충청남도 지역을 중심으로)”, 산업안전학회지.

우장명, 2009, “충청북도의 농공단지 운영 실태와 활성화 방안”, 정책연구.

유세준, 2008, “FTA극복을 위한 농공단지 입주기업 지원시책 개선방안 연구”, 통상정보연구, 10(4).

조혜영, 2007, 농공단지의 실태와 향후 정책과제,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산업단지공단, 전국산업단지현황통계